

있다. 결국 「龍王辛審」이 적힌 土器들은 東宮의 「龍王典」에서 祭器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雁鴨池에서 出土한 유물중에 三尊板佛을 비롯한 佛像들도 二〇여점에 달한다. 東宮 관청중에 「僧房典」이 있는 것과 더불어 생각할 때 宮內에 승려들이 상주하여 불교의식이 빈번히 행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궁내에서는 불교의식과 용왕상신에 대한 제사가 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銘文이 적힌 祭器의 木偶・鉛으로 만든 가위・거울 등 民俗信仰과 관계깊은 유물이 많이 아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東宮 소속 관청은 「月池典」과 「月池嶽典」이라고 생각된다. 「月池典」에는 闕로 되어있고 관리의 배정이 없다. 아마도 「月池典」이 후에 「月池嶽典」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嶽典이란 지금의 造景담당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月池의 造景을 관장한 곳이 「月池嶽典」이다. 여기에 소속된 관리는 大舍二人, 水主一人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水主이다. 李丙燾박사가 譯註한 三國史記에 보면 水主는 堤池를 관리하는 관리이다. 그러나 東宮에는 月池란 곳이 있어서 造景도 하고 물도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을 결론 지어보면 雁鴨池 발굴출토 유물중에 東宮에 소속된 관청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있으며, 또한 東宮에는 月池라는 곳이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관청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앞의 三國史記 文武王 一四年條에 나오는 「宮內에 못을 팠다」는 기록으로 추정해보면, 원래 新羅의 宮城址로 알려져 있는 半月城이나 北쪽의 殿廊址 등에는 관리까지 배치해서 造景을 했을만한 못자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사는 分明히 新羅 최대의 人工池인 雁鴨池 조성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宮이란 東宮을 말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雁鴨池의 당초 이름은 「月池」에 틀림없을 것이다.

(國立慶州博物館長)

雁鴨池出土 木造建築部材에 對한 考察

金 東 賢

雁鴨池 및 臨海殿址 一帶는 一、三〇〇餘年前 만들어진 統一新羅時代의 別宮과 苑池가 復合된 遺蹟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雁鴨池는 新羅 第三〇代 文武王 一四年(六七四年)에 造成되었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五年後인 文武王 一九年(六七九年)에는 東宮을 지었다는 記錄이 보이고 있어 發掘調査가 이루어지기 以前부터 雁鴨池 및 그 周邊建物址에 對한 歷史的인 背景은 어느정도 周知하고 있었다. 그러나 發掘以前의 연못이나 기타 遺構內容만으로는 雁鴨池에 對한 作庭技法은 勿論 周圍에 있던 殿閣榭亭에 對한 配置가 어떠한지는 지 전혀 想像할 수 없었다.

그러나 一九七五年 三月부터 一九七六年 一二月까지의 二年餘에 걸친 全面的인 發掘調査를 通해 豫想하지 않았던 統一新羅時代의 苑池細部와 建物配置內容이 밝혀져 當時의 造園術과 建物規模等에 對해 尙상히 把握할 수 있었다.

특히 雁鴨池에서 出土된 많은 貴重遺物들은 露出遺構 못지 않게 遺構內容을 把握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當時의 生活斷面을 理解할 수 있는 크나큰 契機를 마련케 하였다. 이 遺蹟에서 出土된 遺物은 量과 質에서 지금까지 어느 遺蹟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最多出의 瓦磚類를 비롯하여 金屬製品, 木竹製品, 土石製品들이 多數出土되었다.

여기에 紹介코자 하는 遺物은 많은 出土遺物中 木造建築 部材片에 局限하였다. 이들 部材들은 建物에 있어 基壇上部에 사용되었던 柱頭 및 棋包部材, 그리고 屋蓋에 사용되었던 椽木, 浮椽, 平交台, 椽舍들이며 欄干材等이다.

이들 部材는 크히 斷片的인 資料材에 不過하나 當時의 木造建築의 細部를 部分的이나 말할 수 있다는 데에 큰 意義가 있을 것이며 現存하는

木造建築과의 比較研究을 通해 보다 明確한 現存建築의 系統的 理解가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A, 檐遮一

全長 九一·八cm, 高二二·九cm, 幅 一四·一cm

兩端마구리를 四段접기 하였으며 中央下部에 홈을 파서 앞을장으로 되었고 上面에는 中央과 兩端쪽에 小累를 놓게 하였음. 小累와 小累사이에는 曲面棋眼을 두었음. 小累가 놓이는 자리에는 둥근축의 구멍이 파여져 있음.

檐遮二

귀棋包에 사용되었던 檐遮로 한 쪽은 缺損되었음. 一端 마구리로부

터 七五·五cm 되는 곳에 위쪽으로

홈이 파여져 있고 그 部位에서 四五度角으로 또 하나의 홈이 있어 귀棋包의 받음장 檐遮임. 三段접기로 處理하였고 그 上面에 小累를 놓았던 흔적이 있으며 추구멍이 있음. 棋眼은 그 斷面이 直角으로 되었음.

檐遮三

全長 一四一·五cm, 高二五cm, 幅 一四cm

全長의 1/3 되는 部位에 밑에서 윗쪽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 앞을장 檐遮임. 이 檐遮는 귀棋包나 柱上棋包에 사용할 수 있는 部材이며 上面에는 小累四個를 놓았던 흔적이 있음.

現存例 ① 浮石寺 祖師堂의 山彌檐遮

② 潤松美術館所藏 金銅三尊佛龕 귀棋包의 行工檐遮

③ 日本의 和樣建築 및 中國(唐) 建築에도 보임.

B, 柱頭

一邊長 二三·五cm, 高一四·一cm, 底邊

一五·八cm

一般的으로 생각하는 柱頭보다는 작고 小累보다는 큼. 上面에 檐遮를 끼울 수 있는 홈이 두 方向으로 파여져 있어 平柱에 사용되기보다 建物 側面 平柱나 高柱 아니면 所謂 접시받침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굵기의 모양은 強한 曲面으로 處理하였음.

C, 椽木一

앞목은 比較的 잘 남아있으나 뒷목은 缺損되었음. 椽端直徑은 一一·四cm 이

며 뒷쪽으로 가면서 굵어지고 있음. 마구리의 자름은 길이의 直角方向이며 平交臺를 올려놓은 자리에는 釘痕이 보이지 않았고 部分的으로 朱漆痕이 보임.

椽木二

앞목 直徑은 一一·八cm이며 뒷쪽으로 가면서 차차 굵어지고 있음. 앞목 윗쪽에 平交臺를 편안히 놓을 수 있도록 平交臺座를 만든 것이 特異함.

D, 平交臺一(초매이)

椽木위에 없어 浮椽을 받는 部材인데 초매이와 浮椽着固를 한나무로 만들어 浮椽을 끼우도록 되었음. 現存 木造建物에서는 볼 수 없는 新例임.

平交臺二(초매이)

平交臺一과 같은 手法의 部材이나 약간 작음. 浮椽이 끼워지는 홈에는 釘痕이 있었고 下面에는 部分的으로 朱漆이 남아 있음.

平交臺三(초매이)

扇子部分에 사용되었던 것임. 全長

一一〇cm의 것이며 扇子部分의 浮椽配
列홈이 五個所에 있음. 浮椽座홈의 간

격으로 보아 春古쪽으로 가면서 차차 浮椽거리를 좁혀가고 있음.

浮椽心거리 二四·一五cm, 二二三·七五cm, 二二二cm

E, 浮椽

扇子部分에 사용되었던 浮椽임. 現存

長 一一五cm, 高 七·五cm, 幅 八·六cm

임. 平交臺에서 마무리까지의 길이 五

〇cm임. 平交臺座에 꼭맞도록 턱을 두었

으며 方頭釘이 그대로出土되었음.

F, 이매이

現存長 一八二cm, 高 六cm, 幅

一四cm

浮椽위에 얹어 椽숨을 받는 部材

임. 上面의 椽숨이 놓였던 位置는

八cm幅으로 평평하게 다듬질하고 뒷쪽은 적당히 경사로 깎아내었음. 浮

椽과의 緊結을 위한 못의 位置는 一定치 않으나 平均 二七~二九cm 內

外였음.

G, 椽舍

現存의 것과 同一한 手法의 것임

高 七·五cm, 幅 二·二cm의 部材

로서 女瓦가 三〇cm 간격으로 놓이도록 曲面을 이루고 있음. 曲面中央

에는 이매이와 緊結되도록 못구멍 흔적이 있음.

H, 欄干童子柱

全高 六四cm, 最大幅 一一·五cm

三段形式의 童子柱로 下端에는 欄

干살이 끼워지도록 되었고 中段은 曲面梯形이며 그 위 上段은 小累를

높아 돌란대를 얹게 하였음. 下段에는 축을 만들어 他材에 끼우도록

되었음.

欄干小累

一邊長 一一cm, 高 八·五cm. 同形の 것이

모두 八點 出土되었으며 上面에는 斷面 圓形

돌란대를 올려 놓을 수 있게 圓形으로 파여졌

고 小累굽은 斷面굽임.

欄干살대

이 部材는 多數出土되었으며 復

元하면 右圖와 같음. 이러한 形式

의 欄干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

國, 日本等の 上代建築遺構에서 많이 볼 수 있음.

살대의 斷面 值數는 一邊 四·五~五cm임.

I, 小累間壁

高 九·八cm, 上面長 八·六cm, 下面

長 一七·二cm

小累사이의 災壁材임. 이 壁材는 小

累의 굽모양을 알 수 있는 資料로서 重

要함.

(文化財研究所 保存研究室長)